



24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12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1회 말 KIA 공격 선발투수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FC·전북 현대 공동 마케팅 유니폼 입으면 원정경기 무료

광주 FC와 전북 현대가 각 구단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원정 응원석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  
 장거리 원정응원에 나서는 서포터즈를 배려하고 축구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10라운드 경기와 18라운드 광주 경기에 적용된다.  
 광주 팬들은 홈팀 유니폼이나 노란색 T셔츠를 입으면 전주월드컵경기장 원정 응원석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광주를 찾는 전북 팬들은 홈팀 유니폼이나 녹색 유니폼을 입으면 된다. 원정신청은 광주 공식 서포터즈

빛고를 카페(<http://cafe.daum.net/made-ing>)를 통해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청 김민균 실업육상 금

광주시청 김민균이 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민균은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100m에서 10초63의 기록으로 과천시청의 정현섭을 0.03초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위는 상무 박평환이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슈퍼 빅매치’ 광주가 들썩

KIA 윤석민·한화 박찬호 선발 맞대결  
무등경기장 팬·취재진 북적... PS 방불



KIA 윤석민과 한화 박찬호가 만원 관중을 불러들였다.

24일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첫 대결이 벌어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만2500명의 관중이 들어서면서 매진 사례를 이뤘다. 지난 11일 삼성과의 홈 개막전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매진이다.

에이스 윤석민의 출격에 박찬호의 등판까지 더해지면서 9000여석의 사전 예매표가 일찌감치 팔려나갔고, 3000석 가량의 현장 판매표도 오후 4시50분 동이 났다. 평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선 팬들로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프로야구 4관왕과 한국 야구의 역사의 대결에 덕아웃도 매진 사례를 이뤘다.

두 선수의 대결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덕아웃 분위기는 포스트시즌을 방불케 했다.

팬들과 취재진들로 술렁인 경기였지만 양

팀 사령탑은 오히려 느긋한 표정이었다.

KIA 선동열 감독은 “27살 박찬호와 대결이라면 몰라도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기에 두 선수의 나이 터울이 13살이나 난다”며 “나와 (최)동원이 형이 4살 차이였는데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박찬호도 훌륭한 선수가지만 한 살 차이의 윤석민과 류현진이 만났다면 정말 재미있는 대결이 됐을 것이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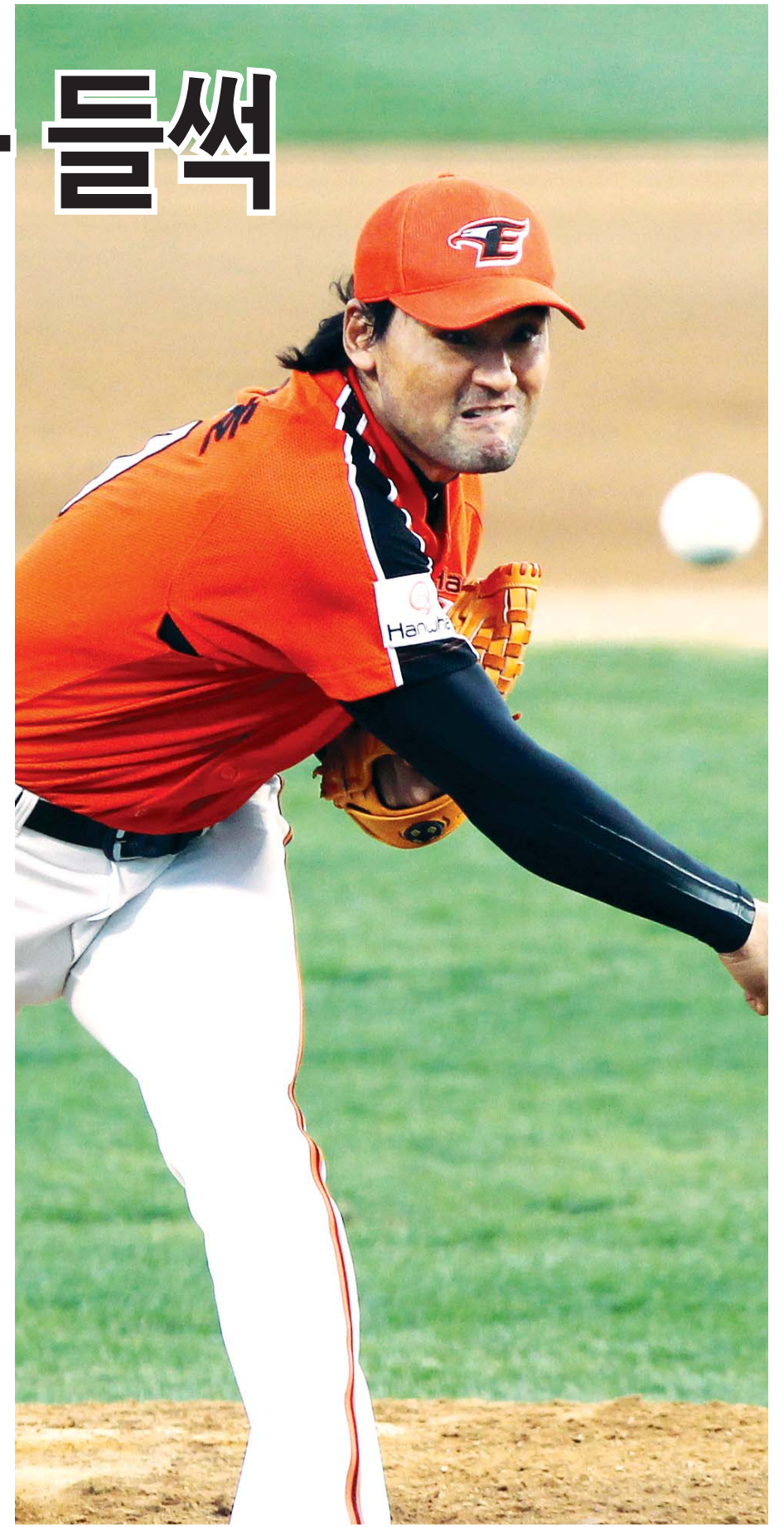
이날 경기전까지 2승10패에 그치며 1승이 급했던 한화 한대화 감독도 “둘이 세계를 보는 것이다. 비만 오지 않았다면 (로테이션상) 류현진과 윤석민이 붙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농담까지 던지며 이날 경기에 대해 얘기했다.

한편 윤석민은 이날 평일 만원 사례를 이어가면서 KIA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최근 무등경기장 평일 만원은 4월11일, 윤석민이 등판했던 삼성과의 홈 개막전에 시즌 첫 만원이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마지막 평일 매진 경기의 선발도 윤석민이었다. 윤석민은 지난해 9월8일 삼성과의 홈경기 선발로 나서면서 만원 관중 앞에서 공을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12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1회초 한화 공격 선발투수 박찬호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KIA 박찬호 공략법 ‘닥공, 닥뒤편’ SUN “윤석민 어떻게 더잘해?”

### ① 덕아웃 말말말

▲지금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 선동열 감독, 윤석민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수들은 창피했나봐 = 선동열 감독, 홍재호의 홈런이 나온 날 이견열 코치가 만세를 부른 사연을 설명하면서, 9경기에서 안타가 없던 홍재호가 안타를 치면 선수단이 같이 만세를 부르기로 했는데 이 코치 혼자 만세를 불렀다며.

▲아~ 안치홍 잘 쉬었네 = 안치홍의 배팅 훈련을 지켜보던 이견열 타격코치, 타구가 외야로 쭉쭉 뻗어나가자.

▲왜 이렇게 많아요? = 많은 취재진들이 덕아웃에 있는 것을 본 투수 심동

섭,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일 일어나고 몰으면서.

▲함평 안가려고요 = 많은 맘을 흘리면서 덕아웃에 들어온 나지완, 2군에 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KIA 2군 경기장은 함평에 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 최희섭 컨디션이 어찌냐는 질문을 받은 뒤, 컨디션이 좋으면서.

▲닥공 닥뒤편 = 박찬호 공략비법이 뭐냐는 질문에 김경호 작전 코치, ‘닥치고 공격, 닥치고 뒤편’ 전략이라며.

▲너도 나이 들어봐라 = 겨울 점퍼를 입고 나타난 하일성 해설위원, 한대화 감독이 날도 좋은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홍명보호 최상의 조편성

올림픽축구, 멕시코·스위스·가봉과 B조

한국 축구가 런던 올림픽 본선에서 멕시코, 스위스, 가봉과 리그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2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웹탈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조 추첨에서 이들 세 나라와 B조로 묶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기준으로 31위인 한국은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7월26일 가봉(42위)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9일 스위스(18위), 8월1일 B조 톱시드인 멕시코(20위)와 차례로 맞붙는다.

지난해 북중미축구연맹 골드컵에서 우승해 톱시드를 배정받은 멕시코는 영국, 스페인, 브라질에 비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

A조	B조	C조	D조
영국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세네갈	한국	이집트	일본
UAE	가봉	벨라루스	온두라스
우루과이	스위스	뉴질랜드	모로코

상대. 스위스 국가대표팀과는 2006 독일월드컵 본선에서 한 번 맞붙어 패배했지만 올림픽 대표팀 간 맞대결의 경우 2004년 카타르 친선대회에서 만나 2-0으로 승리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에 오른 가봉과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